

유실 가로수 '털이꾼'에 몸살

반송로 은행, 마구잡이 채취로 가지 등 손상 공항로 모과, 산책·운동 나온 시민에 수난 명륜동 감나무, 익기도 전에 '감' 실종

가을로 접어들면서 유실 가로수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은행, 감, 모과 등이 익기 시작하자 털이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석대교차로에서 반송동으로 이어지는 반송로는 은행털이꾼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곳이다. 지난 30일 석대교차로에서 반송동 입구까지 왕복 4차로를 따라 1km 가량 형성된 은행나무 가로에는 털이꾼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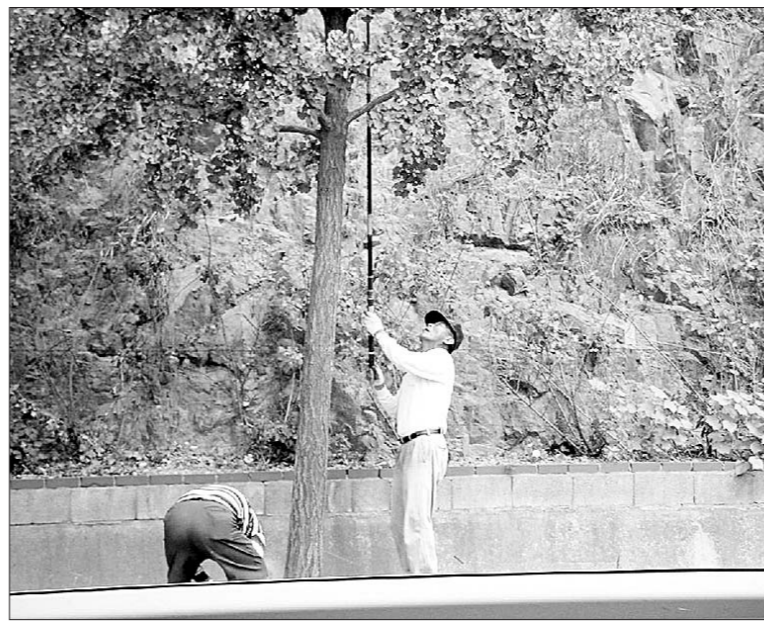
모 철물상 앞에는 은행나무를 타고 올라간 털이꾼이 가지를 발로 밟고 무자비하게 흔들며 열매를 바다에 떨어뜨렸고, 밑에서 대기중이던 또 다른 털이꾼이 연신 보자기에 주워 담고 있었다.

은행털이 방법이 무자비하다보니 나무가지가 부러지기 일쑤였다. 실제 이들이 훔고 지나간 자리에는 부

러진 나무가지들과 아직 초목빛을 머금은 은행잎들이 아무렇게 널부러져 있었다.

같은날 반송로를 따라 가장 방면으로 500여m를 더 올라가자 장대들 2인조가 은행나무 가지를 두들기고 있었다. 나무가지와 잎사귀들이 건널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 여기저기 상처입은 나무가지들과 잎들이 은행열매들과 함께 나뒹굴고 있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털이꾼은 "그냥두면 어차피 못 쓸 열매인데 이렇게 수확해서 술안주나 약재로 내다 팔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 관계자 "은행을 털다 현행법으로 잡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 1백화점 맞은편 도로가에 심어진 감나무 10여 그루도 털이꾼들의 극성에 남은 열매



가로변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고 있는 시민들.

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감나무 관리를 맡은 동래구청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감이 익기도 전에 따가는 바람에 몇 해동안 수확을 해 본적이 없다"면서 "감을 따가는 것도 문제지만 나무를 손상시켜 못쓰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명지동으로 뻗은 공항로의 모과나무들 역시

수 년동안 열매 도둑에 시달리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모과를 따기 위해 넓디넓은 공항로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가끔 눈에 띄어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다"면서 "강변로를 따라 산책이나 운동 나온 시민들이 수시로 모과를 따가기 때문에 수확을 포기하지 오래다"고 말했다.

박진국기자 gook72@busanilbo.com

놀이기구 타던 초등생 2명 30여m 높이서 추락 중태

1일 대전 꿈돌이랜드 '안전장치' 소홀 가능성

대전의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생 2명이 추락,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1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랜드에서 회전놀이기구 '스윙드롭'을 타고 있던 정모(12·대전 동구양과 광모(11·대전 동구)양 등 2명이 지상 35m 저점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중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을지병원으로 옮겨진 정모는 머리와 턱을 다치고 팔과 다리가 부러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선병원으로 후송된 광모도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턱을 다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오후 5시께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꿈돌이랜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윙드롭'은 최고 40m의 높이에서 빠른 속도로 360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탑승기구로 탑승인원은 양쪽에 있는 탑승칸에 4명씩 총 8명이다. 의식이 있는 광모는 병원으로 후송된 뒤 "안전바를 채우지 않았다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기구가 출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현장에는 안전요원 2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경찰에서 "놀이구를 움직이기 전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점검해야 했지만 모두 점검한 것으로 착각한 채 작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꿈돌이랜드 측은 "이 놀이기구는 안전장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 기구"라고 해명했으나 탑승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1일 오전 11시 5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모 신발공장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기계와 신발 등 소방서 추산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꺼졌다.

이날 공장에는 추석을 앞두고 늘어난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10여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을 하던 중이었지만 다행히 근로자들은 화재가 나자마자 출입문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열풍기 콘센트 쪽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기 시작했다는 공장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라 일단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원을 조사 중이다.

정선연기자

사건·사고

잔업 중 신발공장에서 전기 누전 추정 화재

1일 오전 11시 5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모 신발공장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기계와 신발 등 소방서 추산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꺼졌다.

이날 공장에는 추석을 앞두고 늘어난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10여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을 하던 중이었지만 다행히 근로자들은 화재가 나자마자 출입문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열풍기 콘센트 쪽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기 시작했다는 공장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라 일단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원을 조사 중이다.

정선연기자

"선불금 받고 도주"

20대여 강제 납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차에 태워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체포강금 등)로 커피숍 사장 김모(27·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1일 오후 8시20분께 선불금 600여만원을 받은 뒤 도망간 이모(26·여·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씨를 찾아가 차량에 강제로 태워 자신들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경남 남해로 가다 이모씨의 전화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 경찰의 설득으로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선연기자

가짜명품 2천여점 유통

판매업자 등 51명 검거

부산경찰청 외사과는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시계 2천500여점을 부산, 울산지역 시계점, 금방 등 불법 유통시키거나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유통업자 박모(67·여)씨와 시계점 업주 박모(37)씨 등 51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부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밀수입자로부터 로렉스, 피아제, 까르띠에 등 가짜 해외 명품 시계 2천500여점(정품가 250억원 상당)을 구입해 부산, 울산지역 시계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진기자

'SK 허브스카이' 사용승인 연기

입주 예정자-건설사간 '계약위반' 이견 못 좁혀

숙보=건설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원천동 SK 허브스카이(본보 지난달 28일자 10면 보도)의 사용승인이 결국 미뤄졌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달 29일까지 처리하기로 돼 있던 부산 동래구 원천동 SK 허브스카이에 대한 사용승인 민원처리기간을 넘겨 2일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SK 허브스카이 입주예정자 70여명은 시청을 찾아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겠는 시청 담당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29일 오후 건설사 측과 만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 총회 개최에 최대한 협조할 것 등을 협의했으며 1일 오후에는

입주예정자 87세대 100여명이 모여 임시총회를 갖고 건설사와 협의한 사항을 재차 논의하는 등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SK 허브스카이 중에서도 101동과 102동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이 기동 돌출과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홈플러스와 CGV 극장 등을 포함한 상가 290여세대는 사용승인이 늦춰질 경우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가 초래된다는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민원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용승인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며 "사용승인은 제 3의 전문가가 법령에 따라 검토한 뒤 서류

를 갖춰서 신청하면 부서간 협의와 검토를 거쳐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경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규기자 iwill@

조선일보 방희장 차량 피습

단서 포착 못해 수사 난항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 승용차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벽돌 등에 남은 지문을 분석 의뢰하고 범행 용의자 도주로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하는 등 용의자의 신원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의 지문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벽돌과 방 명예회장의 벤츠 승용차 등에 대한 정밀감식을 분석 의뢰했으나 회사 관계자들의 지문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푸른색 옷을 입은 180cm 가량의 20대 중후반 남성이 옆으로 비스듬히 맨 가방에서 벽돌을 꺼내 차량 뒷유리창을 내려 찍었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몸타주 작성을 시도하고 있다.

방우영(78) 명예회장은 29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선산에서 조부인 계초 방응모 선생 22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내려와 돌아가던 중 차량이 잠시 정지해 있던 사이 20대로 보이는 괴한 2명으로부터 차량 뒷유리창을 벽돌로 내려 찍히는 습격을 받았다.

한민사



인권 상담은 지역번호 없이 1331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 사무소

'추모음악회'

부산역, 수험생 행렬로 '복세동'

서울시 공무원시험 응시로 20~30대 몰려

추석을 앞둔 지난 주말, 때마침 '민족대이동'이 벌어졌다. 고향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해서였다.

지난 1일 열린 '2006년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전국의 수험생들이 서울로 몰린 것.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지역제한을 없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응시생만도 전체 응시생의 44%에 달했다.

이같은 대규모 채용은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모처럼의 기회. 부산의 수험생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날 시험을 위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수

만명의 수험생들이 몰렸다. 이때문에 지난달 30일 부산역은 책가방을 짊어진 20~30대 수험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대부분의 서울행 KTX 열차가 만석으로 부산을 출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날 오전 5시 10분 부산발 서울행 KTX 임시열차를 긴급편성했지만 이미 예매 시작일부터 좌석이 동이 났다.

한편 이날 치뤄진 시험은 932명 모집에 15만명이 응시해 1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실제로 9만7천여 명이 출석해 시험을 치렀다.

김종열기자 bell10@



1일 오후 부산 영락공원 영락원 앞 간이 무대에서 추석을 앞두고 성모를 위해 공연을 펼친 시민들을 위한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이재찬기자 chan@

한림 제약 주식회사 www.hanlim.com

피로회복·활력보강에 호르반®

호르반에는 녹용·로얄젤리·살모사 추출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 쌓이는 피로, 이제 호르반으로 푸십시오. 녹용·로얄젤리·살모사 추출성분의 귀한 영양소가 들어간 호르반은 피로회복·자양강장·활력보강을 위한 자양강장제입니다. '호르반'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

일반 의약품

- 공부에 지친 아이를 위해
- 업무에 지친 남평을 위해
- 머리에 지친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족의 피로- 이제 '호르반'으로 푸십시오.

※ 호르반은 약국에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02)3489-6114, 부산(051)503-8858, 대구(053)527-0205, 대전(042)488-1782~4, 청주(042)488-1785~6, 원주(033)744-2887, 전주(053)237-5787, 광주(062)383-4272, 마산(055)295-3837